



팬택, SK텔레텍 합병 휴대폰 시장 빅뱅 예고

SK텔레텍이 팬택과 합병하는 대규모 빅딜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SK텔레콤은 SK텔레텍의 내수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스카이(sky)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했던 빅딜이 현실화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SK텔레텍 인수에 관한 논의는 사실 2~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위해 양사는 많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번 빅딜이 성사된 이유는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병의 내용

우선 합병의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유중인 SK텔레텍 지분 89.1%(674만7421주) 중 60%인 454만2,000주를 팬택엔큐리텔에 매각했다. 주당 매입금액은 6만6,050원으로 매각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양사는 올 상반기 중에 SK텔레텍의 경영권 양수양도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경영권 매각 후에도 일정지분을 갖고 비상임이사 1~2인에 대한 선임권을 갖는 등 영향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SK텔레텍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고용승계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이 이루어진 배경

이번 합병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과 합병조건으로 SK텔레텍의 국내 판매대수를 연간 120만대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SK텔레텍의 내수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공정위 역시 SK텔레콤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SK텔레텍 인수로 팬택은 내수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3강 구도를 그리게 됐다. 가장 큰 외형적인 변화는 LG전자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올라선 점이다. 이는 장차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입장은 다르다. 아직 정부의 내수규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를 넘기면 내수규제가 자연히 풀리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SK텔레텍의 성장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내수 규제가 풀린 후에도 간접적으로 규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 팬택을 매각 대상으로 선택한 것을 놓고 모종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SK그룹이 소버린자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팬택이 SK의 지분 1.2%를 인수하며 SK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해외 시장의 경쟁력 확보로 보인다.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SK텔레텍의 경영권을 팬택엔큐리탈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SK텔레텍은 내수 시장의 가격경쟁력과 R&D 역량 확보없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숙의 끝에 제휴를 결정했다”.

합병의 기대 효과

양사의 합병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사는 합병과 함께 R&D 공유를 통해 휴대폰 공동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의 해외 마케팅 인프라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팬택의 연구개발 능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팬택은 이번 합병으로 연간 3,0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공급하며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SK 텔레콤도 이번 합병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팬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연구개발 등은 SK그룹의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중국 정부로부터 CDMA 현지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신장텐디텔레콤·다탕텔레콤 등과 현지법인 ‘SK모바일’을 운영하며 GSM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팬택은 이미 중국에서 GSM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SK어스링크를 통해 미국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현지에서 이동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에서는 SK텔레텍의 매각이 SK그룹의 휴대폰 사업의 포기가 아니라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향후 시장 예상판도

이번 SK텔레텍 인수로 팬택은 내수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3강 구도를 그리게 됐다. 가장 큰 외형적인 변화는 LG전자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올라선 점이다. 이는 장차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올 1사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48%, LG전자가 18%, 팬택 14%, SK텔레텍 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팬택이 SK텔레텍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20%로 올라가면서 2위가 되고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SK텔레콤이 이번 합병을 결정하면서 은근히 감추고 있는 속내일 수 있다. 어쨌든 SK텔레텍은 고가 모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양사의 합병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스카이(SKY)란 고가 브랜드를 내세운 SK텔레텍이 팬택과 합병하는 형태로 내수제한에서 벗어날 경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감안하면 시장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